



## 전북 홍정호, 24년 만에 나온 수비 MVP로 2021 마무리

홍정호 “해외무대 성공 못 했는데, 손 내밀어 준 전북에 감사”

24년 만에 K리그 선수 중 수비수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전북 현대 홍정호(32). 2010년 제주 유나이티드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홍정호는 유럽과 중국을 무대를 거쳐 2018년 전북 유니폼을 입었다. 해외 무대에 실패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었던 순간 전북은 홍정호를 택했다. 전북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홍정호는 최근 리그 5연패 중 4연패를 함께했다.

홍정호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 스위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1시즌 K리그1 대상 시상식에서 MVP에 뽑혔다. 홍정호는 수상 후 “제가 수비수라 MVP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를 뽑아줘서 큰 상 받게 됐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그는 “4년 전 제가 해외 생활 마무리하고 한국 왔을 때 제가 성공하지 못한 선수라, 뒤지 못한 선수라 찾아준 팀이 많이 없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준 게 전북 현대였

다. 보답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다”며 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다행히 4년 동안 큰 부상 없이 많이 뛴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전북 현대라는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감독, 동료들 만나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홍정호는 “앞으로도 든든한 전북의 벽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다음 시즌에도 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노컷뉴스

## 전북 김상식 “감독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끼는 한 해”

“오늘 18번째 결혼 기념일인데 집에 그냥 못 갈 것 같습니다.” 사령탑 데뷔 첫해 리그 우승을 거머쥔 전북 현대 김상식(45) 감독. 김 감독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 스위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1시즌 K리그1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처음 감독이 돼 감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새삼 공부하는 한 해였다”며 “어떻게 보면 11개 구단 감독님들이 올 한해 제 스승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북은 6대 사령탑에 김 감독을 선임했다. 올해 2월 홈 개막전이자 데뷔전에서 김 감독은 FC서울을 꺾고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5월 FA컵에서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에 패해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에서는 울산 현대에 역전패해 4강 진출이 좌절됐고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심기일전한 김 감독은 팀을 재정비해 파이널 라운드에서 1위로 올라섰다. 결국 그는 지난 5일 하나원큐 K리그1 2021 파이널 A 38라운드 최종전 제주 유나이티드전 승리로 통산 9번째 우승과 리그 5연패를 이끌며 전북의 우



승 DNA를 이어갔다. 김 감독은 “전북 현대라는 팀을 맡고 13년째 같이 하고 있지만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의 무게를 이겨내는 것에 올 한해 힘든 부분 많이 있었다”며 “초보 감독 아래서 고생한 전북 현대 선수들, 지원팀 코칭스태프 모두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제가 원래 상복은 많이 없다. 상을 처음 받아봐서 우승 소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많이 떨린다. 좋은 상 줘서 감사하고 오늘 18번째 결혼기념일인데 집에 그냥 못 갈 것 같다. 상금으로 와이프 백을 사서 들고 가야 안 쫓겨날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김 감독은 “올해 5연패를 했지만 전북 현대는 FA컵, ACL 우승 등 항상 트레블에 도전하는 팀이다”며 “올해 아쉬운 부분을 잘 되돌려 보면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

## IOC “베이징올림픽 연기? 어떤 상황에서도 없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축했다. 독일 dpa 통신 등 외신들은 8일(한국 시각)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 겸 베이징올림픽 조정위원장이 이날 화상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열린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지난해 열린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1년 연기됐다. 취소 주장도 제기됐지만 1년 연기돼 올해 개최됐다. 영국 등 유럽을 비롯해 한국도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그러나 11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추세다. /노컷뉴스

## 김포FC, K리그 회원 가입 승인...내년 1월 최종 승인

김포FC 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승인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2021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포FC K리그 회원가입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한 김포FC는 그간 꾸준히 K리그 참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 10월 연맹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연맹 이사회는 김포시 인구 증가 추세, 홈구장 솔터축구장의 높은 접근성, 김포시의 지원 의지, 김포FC가 제출한 구단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김포FC의 K리그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솔터축구장 관중석 증설(5000석 규모), 올해 내 유소년(U18) 클럽 창단, 사무국 임직원 총원 등 구단 운영계획 이행 여

부를 김포FC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포FC 회원가입의 최종 승인은 내년 1월에 있을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승인이 있으면 2022시즌 K리그2 참가팀은 김포FC를 포함한 11개 구단이 된다. 이번 시즌 K리그1에만 적용했던 ‘5명 교체’가 2022시즌부터는 K리그2에도 적용된다. 선수 교체 방식은 이번 시즌 K리그1과 동일하다. U22 선수가 최소 선발 1명, 교체 1명 이상 출장했을 때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교체는 2명으로 제한되고, 선발출장은 했으나 교체출장이 없으면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교체 횟수는 하프타임을 제외하고 경기 중 3회까지 가능하다. /노컷뉴스

새전북신문 THE SAJEONBUK SHIMUN 구독신청 063) 230-5712

전북의 바른 중심, 새전북신문

<국제 PEN 한국본부 전북위원회 회장> 지은이 이정숙

## 계단에서 만난 시간

- 지금은 노랑신호등
- 내 안의 어처구니
- 꽃앞에 데다

이후 4번째 몽골여행 에세이

‘계단에서 만난 시간’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여행에서 만나는 대상과의 미러링을 통해 숨춘 사유를 건어올린 에세이다. 순우리말을 가미한 철학적, 문학적 깊이는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끌어낸다. 울컥리로 울려진 몽골 사진들은 현지를 다녀온 사람은 다시 추억을 소환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몽골 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여행의 진정한 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길을 떠날 것이다.

인간과 문학사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